

“일승법계도 저자의 사상스님 확실히”

해주스님 日 인도학불교학회 세미나서 주장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의 저자는 의상(義相)스님이 확실하다.”

지난해 11월 ‘화엄일승법계도’의 저자 논쟁에서 제기된 오스트렐리아의 불교학자 존 요겐슨 교수(John Jorgenson·그린피스)의 “지엄(智嚴) 저작” 주장(본지 153호 9면 참조)에 대해 ‘일승법계도의 저자는 의상(義相)스님이 확실하다’는 반박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5~6일 일본 요코하마 츠틀미대(鶴見大)에서 열린 인도학불교학회 제49회 학술대회에서 해주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은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의 저자 시비(是非)에 대한 시비’를 통해 “요겐슨 교수가 ‘지엄’의 근거로 제시한 《방산석경·房山石經》은 그 사료적 가치가 의심된다”며 “일승법계도는 그 전체가 분명 ‘의상

작’임이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요겐슨 교수는 지난해 “법성계(法性偈)는 지엄이 짓고, 그 법성계를 해인도(海印圖)에 맞추고 주석을 붙인 것은 의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주스님은 “일승법계도”가 의상스님의 저술임을 밝히는

“보조선님 ‘유심정토’ 수용 말법사관 극복하려했다”

- 보광스님 -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방산석경》에는 중국의 3대 화엄종조로 일컬어지는 두순(杜順)·지엄·법장(法藏)의 저술 세가지가 각인돼 있음에도 두순과 법장의 저술은 친저자가 아님을 밝히면서 일승법계도만 지엄작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둘째, 석경에 각인된 서문은 요겐

슨 교수의 주장처럼 법계도기(法界圖記)와 분리된 것이 아닌 법계도기의 일부로, 서문에는 반시(梵詩: 법성계와 법계도인을 합한 모양)와 서문이 동일인의 저술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문이 주석서인 법계도기의 일부라면 일승법계도는 모두 의상의 저작이다. 셋째, 일승법계도합시일인(合詩一印)이 방산

석경에 각인되기 전(12세기)까지는 중국에서 지엄작으로 유통된 일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해주스님은 “일승법계도의 저자시비는 한국 화엄사상의 뿌리를 뒤엎는 것”이라며 일승법계도의 의상 저술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학술대회에는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등 4명의 국내 불교학자가 참석, 발표했다. 보광스님은 ‘보조선님의 <정혜결사문>에 나타난 정토관’에서 “지눌스님은 정토신앙에 비판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혜결사문>의 제7문에서 정토수행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광스님은 “지눌은 말

“보조선사상의 바탕에는 선교양립 선사상 내포”

- 혜원스님 -

법사관에 대한 부정 보다는 ‘유심정토(唯心淨土)’를 수용, 말법사관을 극복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보조선과 보조선의 상통성(相通性)’에서 혜원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보조선사상의 바탕에는 남종선의 맥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선수(禪秀)가 강조하는 선교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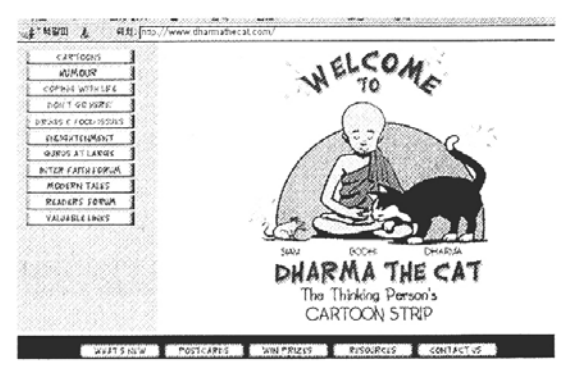
(禪教兩立) 정혜등일(定慧等一)의 선사상도 내포돼 있다”며 “일반적으로 북종계에는 돈오사상이 없고 보조선은 남종계열이며, 따라서 한국선은 혜능계통의 선이라고 단정짓는 경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혜원스님은 “남북양종에 일관되는 선의 본질적 측면은 동점(頓漸)과 정혜(定慧)가 불일불이(不一不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종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은 ‘신라유식에 나타난 종성론(種性論)에 대해서’에서 “신라유식사상은 일체개성설(一切皆成說)을 취하는 일승가(一乘家)에 치우쳐 있다”는 학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신라유식사상은 일체개성설 오성각별설 둘다 인정

- 현종스님 -

했다. 현종스님은 <대승기신론별기> 등의 검토를 통해 신라의 유식사상은 ‘일체개성설’과 ‘오성각별설(五姓各別說)’에 대해 “치우침 없이 두 사상을 대등히 취급하며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고양이 달마

미국 선만화가 로리 개설 사이트 4컷 만화로 보는 부처님 가르침

고양이의 기상천외한 행동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달마(불법)’라는 고양이와 동승 ‘보디’ 그리고 집주 ‘시암’ 사이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소재로 만화를 그려 인터넷에서 불법을 전파하는 사이트가 있다.

미국의 유명한 선(禪)만화 작가 데이비드 로리가 개설한 사이트 ‘고양이 달마(Dharma The Cat)’에서는 동승 보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고 뜻하지 않는 함정에 빠질 때, 냉소적이지만 현명한 고양이와 집주의 도움으로 올바른 길로 들어서 평정을 되찾고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4컷 만화를 제공한다.

이 곳에서 제공되는 만화는 ‘시간’ 집주의 도움으로 게임을 하는 고양이 ‘시암’이 동승의 인내력 ‘죄’ ‘법칙’ ‘사랑이란’ 등 총 11편. 이중 ‘시간’을 주제로 한 만화에서 고양이의 기지를 통해 동승은 존재란 실체가 없으며 단지 현상일 뿐이며 ‘지금 이 순간’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불교적 시간관을 배운다.

이외에도 로리가 그린 만화들의 11개 주제를 놓고 기독교·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만화가들이 그린 삽화도 제형에 돌려 놓아야지. ‘달마는 시계 바늘을 돌려 5시를 만든다. 잠시후 방에 들어온 보디가 웃는다) 보디:시간은 미망(迷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으니 명상이 헛되지 않았어.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무차선회 인터넷 1천5백건 접속

‘고불총림 무차선회’의 ‘인터넷 생중계’ 조회수가 약 1천5백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비백교학연구소 비공식 집계).

‘인터넷 생중계’는 지난 7월부터 무차선회 홈페이지를 개설, ‘고승대법회’의 법어와 ‘한국선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자료 제공은 물론 토론참여와 현장음을 서비스한 기획으로, 인방에서의 간접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유게시판’에는 무차선회 이후, 참가소감·조사선에 관한 질문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ID ‘운암’님은 “인터넷 생중계는 새로운 개념의 불법전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ID ‘사리성’님은 “무차선회를 통해 나도 몰랐던 내 자신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게됐다”며 “고귀하고 엄숙한 스님들의 모습에 오히려 친근함과 정겨움을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따듯한 충고의 일인도 눈에 띄었다. ID ‘도솔’님은 “한국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라며 “전설같은 얘기가 아닌 중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며 난해한 선문답의 대중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조사선을 뿌리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논의는 없이 이론적인 ‘설’만 난무해 아쉬웠다”(ID ‘남자’)는 지적도 있었다. 비백교학연구소는 ‘인터넷 생중계’ 협찬사인 (주)나우컴에 의뢰, 무차선회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정태혁박사 학문 “인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 총결산

인도철학의 거장 향운(香雲) 정태혁 박사(동국대 명예교수)의 논총집 <인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민족사)이 나왔다. 정승석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등 정태혁 박사의 제자들이 뜻을 모아 펴낸 이번 논총집은 정태혁 박사 후 10년만에 나온 것으로, 올해 76세를 맞은 정태혁 박사의 생애와 학문활동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정박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의 문법서를 저술하고 인도철학의 학문적



기초를 닦은 불교학의 원로. <인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에는 정태혁 박사가 동국대 재직이래 집필해온 논문 24편을 3부로 나눠 수록하고 있다. 제1부 ‘원리편’에는 △부다가 본 절대자와 무아설 △불교의 삼존불(三尊佛)과 인도교의 삼신(三神) △불교에서 본 현대사회와 인간성 문제 등 실천사상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철학적인 논문 13편이, 제2부 ‘수행편’에는 자리적(自利的) 실천수행에 대한 종교적 논문 △요가와 불

교의 종교체험과 실천체계 △밀교의 실천철학과 요가 수법(修法)의 성취 등 6편이 수록됐다. 또 제3부 ‘응용편’에는 △불교의 정치관 △불교사상과 공산주의의 논리적 대비 △고려조 각종 도량의 밀교적 성격 등 정치·사회적 실천에 관한 논문 5편이 들어있다. 정태혁 박사는 서문에서 “불법을 만난 고마움과 불덕의 무량한 빛에 싸여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며 “오랜 구도의 역정에서 법의 이삭을 주운 것일 뿐인데 남에 대해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논총 출판을 기념하는 강연회는 15일 오후5시 동국대 문화관 그림에서 열린다. 김정은 기자

“불교고고학 정립 시급하다”

양정석씨 보조研 사지(寺址)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가능케 할 불교고고학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월22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 제16차 월례발표회에서 양정석씨(고려대 강사)는 ‘사지고고학(寺址考古學) 서설’을 통해 “사지는 일 반 건물과는 달리 입지 선택에 서부터 건물의 배치, 중건과정

이 철저히 종교적 의도에서 이뤄진 만큼 불교고고학 이해에 바탕한 불교고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일본은 이미 1937년에 불교고고학을 정립했음을 강조하며 “질터가 발굴조사되기 시작한지 1백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종합적 연구의 부재는 물론 발굴성과를 토대로 미술사학, 건축사학, 지리학, 조경 등의 연구에 대한 깊이만 더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동국대 박물관(관장 이기동)은 ‘기림사(新林寺)의 불

주머니 속 대장경 - 502 아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붓다의 교육관, 그리고 ... 미래 교육의 열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부처님의 음성 - 천상천하 유아독존 -

교육 현실의 병폐를 뼈저리게 통감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릇대로 베풀어 주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 획일화의 칼’을 들이대는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인간에 대한 무지막지한 횡포에 가깝다.

김중서 지음/ B6 182쪽 / 4,400원(아시아문 펴냄)